침 흘림 없는 최소한의 참소유

(여호수아 7:1~26)

10.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12.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침 흘림 없는 최소한의 참소유>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침 흘림 없는 최소한의 참소유'
아기들이 생후 2개월쯤 되면 구강에 세 개의 침샘이 활성화되어 침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기들은 아직 입을 다무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침을 다 삼키지 못하고 흘립니다. 젖을 빨며 입의 근육도 발달하고 침 삼키는 것도 익숙해지면서 첫 돌 쯤 되면 침 흘림이 멈추게 되는데 길게는 두 돌을 넘길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들의 걱정이 많아지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세 돌까지 침을 흘리는 아이가 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침 흘림은 중단이 되는데,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보면 사람은 결코 침 흘림을 멈추지 못하고 일평생 침을 흘리다가 죽습니다.
이 '침 흘린다'는 말을 관용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하면 눈앞에 음식을 먹고 싶어 할 때에 침을 흘리게 되고, 여기에서 발전해서 자기 소유로 삼고자 해서 몹시 탐내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 마음에 들면 손가락에 침을 묻혀서 '내가 찜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침을 묻혔다'라는 것은 내 입에 들어갈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갖고 싶고 몹시 탐이 날 때에 침을 흘린다는 말을 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침을 흘립니다. 사람은 대부분 병이 들어 죽습니다.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기도 하는데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이므로 순간적으로 병이 온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을 탐내다 죽는 것이고, 또 돈을 잔뜩 쌓아 놓고 왜 죽어야 되느냐고 하면서 돈을 쓰는 상태를 탐내고 소망하는데, 결국 침 흘리는 증상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낫지 않

습니다.

그렇다면 선민은 어떻습니까? ‘선민이 부름 받았다’는 사건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침 흘리는 자들 중에서 침 흘림이 멈추는 상태로 부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선민은 침 흘림이 중단된 사람들인데 부름만 받으면 곧바로 침 흘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부름 받아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참소유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 안에는 ‘무소유’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하면 안 될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시고, 소유해봐야 헛된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일 뿐 무소유가 아닌 참소유를 말씀하십니다. ‘참소유’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소유되고 있는 한 만족감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돈과 비교해보면 돈은 벌어서 은행에 넣어두면 든든합니다. 그러나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 살다보면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습니다. 돈은 있지만 자식이 공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위 아저씨의 아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면 사장님이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침을 흘리는데 참소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소유의 증거는 침 흘림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마치 늘 라면이나 짜장면만 먹던 하숙생에게 오랜만에 부모님이 한우 갈비를 먹였습니다. 그렇게 배불러서 기분 좋게 들어오니, 다른 친구들이 라면을 끓여먹고 있을 때에 침을 흘릴 리가 없습니다. 참소유는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갖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다고 하는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강한 현실로 느끼면서,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만족해지는 상태입니다. 돈을 가져본 사람들은 돈을 가져도, 가져도 끝이 없다고 합니다. 이 지구의 돈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우주의 무한한 크기조차 파악을 못합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셨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갖는 것도 천차만별인데, 선민이면 하나님을 가짐에 있어서 최소한의 허용치가 있습니다. 선민을 선민답게 하는 최소한의 커트라인이 참소유인데 이 커트라인까지 하나님을 가져야 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커트라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 다음으로 오늘은 아이 성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아이 성은 여리고 성으로부터 북서쪽으로 불과 18k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해발 800m 높이의 험준한 지형 위에 너무나 작은 성이었습니다. 수8:25절에 “남녀노소 합쳐서 만 이천 명 정도”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는 몇 명이겠습니까? 싸울 수 있는 군인만 60만 명이었던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더군다나 철옹성 여리고를 기상천외한 신명나는 방법으로 함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는 충천해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3,000명만 차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싸웠는데 36명의 전사자가 생기고 혼이 빠져서 도망하여 대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듯이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 가나안의 정복전쟁은 내용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이 대행하고 있을 뿐인데 도대체 이러한 패배가 웬 말입니까? 더군다나 여리고 성을 한 번 이기고 나서 두 번째 싸움에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가 막막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 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라고 하십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하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에는 ‘봉헌한다.’는 의미가 있고, 동시에 ‘진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헌과 진멸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완전히 내 손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진멸하거나 봉헌하거나 선민의 손으로 행하지만, 그 손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성을 온전히 바치라’는 이야기는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으로 ‘그 어떤 재화나 물자도 결코 선민의 손이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이 있었고 ‘금과 은과 동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비축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 시날 산의 외투를 감춥니다.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금으로 수놓아진 왕이 쓰는 망토 같은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금과 은을 자기 손에 넣어서 자기 집에 숨깁니다.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이 조그마한 아이 성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간의 탐심이 뜻하는 바는 ‘탐심을 가지면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들어서는 탐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보고 있는데 금과 은으로 새겨진 외투를 왜 불살라야 합니까? 또한 금과 은도 남들이 많이 바칠 텐데 왜 내 것까지 바쳐야 하느냐는 침이 흐르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참고 다 진멸시키고 금과 은과 동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 성을 칠일 동안에 도는 기간은 기도의 기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간은 유대지파였기 때문에 법궤 뒤에서 따라가는 주력부대에 속해있었을 것입니다. 법궤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모든 주의를 앞으로 집중시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보면 주력부대의 사람들은 법궤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궤’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 법궤라는 증거물을 보면서 그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을 따라, 아간의 마음도 하늘의 하나님께로 이동을 했어야 하고 칠일 동안 돌면서 계속 하나님께 집중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간이 제비뽑기에서 뽑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되고, 아간과 자녀들과 모든 소유와 가축들을 끌어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식도 있고 가축도 있고 친척도 있고 아

간의 마음속에 이것저것 많은 관심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칠일 동안 여리고 성을 반복해서 돌며 법궤를 보면서 마음이 법궤가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이 다 끊어지고 칠일 동안의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가졌어야만 했는데 아간은 여기서 잘못 된 것입니다. 참소유를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칠일 동안 돌리신 이유는 '칠일 동안 법궤를 보면서 나를 생각하면 최소한으로 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에 의한 것이었고, 이 여리고 성에서 취하신 하나님의 방법 속에는 앞으로 무수히 치르게 될 전쟁의 승리에서 계속 그 마음을 유지시켜야 함을 갖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참소유는 칠일 동안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 성 하나를 치르기까지의 최소한의 정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소유를 위한 최소한의 정도가 바로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 주십니다. 여리고 성의 성벽이 무너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진멸하고 모든 물건을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구분해 낼 때에 얼마나 탐스러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주 귀중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서 침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갖는 기간으로 여리고 성을 일곱 바퀴 돌게 하신 것인데 이게 바로 최소한의 허용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다운 모습이 유지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볼 때에 침이 흐르지 않는 정도까지 하나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민은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들이 눈앞에 나타날 때에 침 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앞으로 모든 전쟁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땅에 실현시키려면 선민들이 하나님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으로 마음의 배가 불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승리를 거두게 될 때에, 반드시 이 세상의 전리품들을 나를 채우기 위해 집게 되고 훔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의 연봉이 몇 억이고, 목사님이 결재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돈 많이 쓰는 것에 침을 흘려서는 안 되죠. 또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선민입니다. 선민의 삶은 하나님의 생각이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세상 것들이 앞에 놓이게 되면 침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침을 흘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선민들까지 생기는가 하면 아예 하나님이 역사한 결과로 생긴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해 침을 흘리는 게 아니라, 세상 것들에 대해 침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앞세우려는 사람들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

지 이제 감이 오시지요?
‘이 세상 것에 침을 흘린다. / 침을 흘리는 것을 갖기에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앞세워서 하나님! 내가 침 흘리는 세상 것들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이고 아주 만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간은 이것에 비하면 낫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면서 그저 집 생각이나 하고 있다가, 여리고 성이 함락되고 당장에 눈앞에 시날 산의 외투와 금과 은이 보이자 견물생심으로 탐욕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 기독교인들은 아예 ‘이 세상의 가치들을 확고하게 소유할 것이라’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세우는데 아간보다 죄질이 더 악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만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간보다 더 악한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의 가치들을 향해서 침이 흐르지 않을 정도까지 하나님을 가진 자라야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전쟁을 하고 나서 그 전리품들이 백성에게 돌아올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하나님이 수행하신 전쟁이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단계로 선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고 전리품을 마땅히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의 별도의 단계로 하나님이 은혜로서 주시는 것이지, 내 노력과 나의 수고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임할 때에는 언제나 이 세상 것들에 대해 침이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대신 치르는 선민이면 반드시 이러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세상 것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이지, 선민이라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여리고 성을 돈다.’는 것은 여리고 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선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한 첫째 조건이 됩니다. 내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려면 내가 아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내가 가정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 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에 바짝 다가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리고 성에 붙어서 여리고 성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붙어서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을 가질 것을 꿈꾸지 않고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면,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값진 물건들에 대해서 전혀 침을 흘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여리고 성에 붙어서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 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

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직장이라면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합니다. 직장 안에서 존재하는 값진 것들인 성과, 승진, 보너스, 월급, 사장에게 잘 보이기 등에 대해서 전혀 침을 흘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고 하나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이제 직장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나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내가 조금도 마음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선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자 일어난 일이 유무상통입니다. 그동안 내가 벌어서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돈이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니 전혀 내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내가 가진 돈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만큼 하나님으로 배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소한의 참소유의 허용치입니다. 이 세상 것을 향하여 침을 흘리지 않을 정도까지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법궤'라는 증거물이 가리키는 하늘의 하나님을 좇아갑니다. 이것이 참 아슬아슬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법궤에 들어있는 말씀의 완성이시고 말씀자체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여리고 성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직장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교회나 기도원에서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 옆에서 법궤를 보았던 것처럼 직장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식과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을 대할 때에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며 주님이 빛이시므로 빛의 속도로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럴 시간도 없다면 직장에 나가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해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휩쓸리며 힘들다면 가정에 뛰어들기 전에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내가 침을 흘리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승진해도 그것이 전혀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진이 일어나도 승진을 좋아하지 않고, 승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사용되어 질 수 있습니다.

선민은 참소유를 위해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참소유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소유해야 합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영원토록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면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민이 선민답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 침을 흘리지 않을 정도까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져야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선민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고, 그 이상의 생각들 또한 실현시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침이 멈출 수 있는 지점까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갖는 것이 바로 선민의 선민 됨의 최소한의 커트라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가정과 직장에서 붙잡음으로써 그것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뜻이 이루어진 결과들을 아간처럼 손에 쥘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